

어청도 해역의 어류상

최 윤, 라혜강, 정효진
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명과학부

서 론

어청도는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(126° 17' E, 26° 03' 2)에 속하며, 섬 주변의 해안선이 대부분 절벽으로 이루어진 섬이다. 섬 주변의 바닥은 주로 모래와 펄이 섞인 사니질이거나, 모래 위에 펄이 퇴적되어 이루어진 고화된 펄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. 최근에 어청도 외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사 채취 등으로 어류분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까지 이 해역의 어류에 대해 면밀하게 연구된 바가 없었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청도 주변해역의 어류상을 조사하여 추후 이 해역 어류상 변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.

재료 및 방법

2004년 7월부터 2005년 8월까지 9회 채집을 실시하여 이 해역 어류상에 대해 조사하였다. 어청도에서 1km 주변의 두 정점을 소형 저인망(폭 10m, 망목크기 2.5×2.5cm)을 이용하여 약 2 knots의 속도로 1시간씩 예인하였고, 자망조사는 어청도에서 외해 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서 삼중자망을 5세트 설치, 12시간 후 채집된 생물 중 어류만을 선별하여 현장에서 10% 중성 포르말린에 고정한 다음 실험실로 운반하였다. 표본의 동정과 학명 및 국명은 김 등(2005)에 따랐고, Nakabo (2002)를 참조하였으며, 종의 배열은 Nelson (1994)의 체계에 따랐다.

결 과

본 연구에서 채집된 어종은 자망조사에서 6목 14과 16속 16종이 채집되었으며, 개체수에 있어서 가자미과 *Pleuronectidae* (36.6%)어류가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꼼치과 *Liparidae* (14.9%), 삼세기과 *Hemitripterae* (12.3%), 아귀과 *Lophiidae* (12%)순이었다. 우점종은 가자미과의 문치가자미 *Pleuronectes yokohamae*, 물가자미 *Eopsetta grigorjewi*, 꼼치과의 꼼치 *Liparis tanakai*였다. 저인망조사 결과 어청도의 내측에서 7목 24과 30속 32종이 채집되었으며, 출현개체수는 돛양태과 *Callionymidae* (34.4%), 황줄베도라치과 *Pholididae* (23.2%), 망둑어과 *Gobiidae* (6.8%), 넙치과 *Paralichthyidae* (6.3%)순이었다. 우점종은 돛양태과의 참돛양태 *Repomucenus koreanus*, 꽃돛양태 *R. ornatipinnis*, 망둑어과의 쉬쉬망둑 *Chaeturichthys stigmatias*, 넙치과의 넙치

*Paralichthys olivaceus*가 우점이었다. 어청도의 외해 쪽에서 정점에서 저인망으로 채집된 어류는 8목 21과 28속 33종이었으며, 돛양태과(38.0%), 망둑어과(20.3%), 쥐노래미과 Hexagrammidae (5.9%), 넙치과(5.7%)순이었다. 우점종은 참돛양태, 쉬쉬망둑, 왜넙치 *Tarphops oligolepis*였다.

참고문헌

- 김익수 · 최 윤 · 이충렬 · 이용주 · 김병직 · 김지현. 2005. 한국어류대도감. 교학사, 615 pp.
- Nakabo, T. (ed.) 2002. Fishes of Japan with pictorial keys to the species, English edition. Tokai Univ. Press, 1749 pp.